

별그대 타고 중국 내 '치맥' 열풍!

치맥 문화도 이제 한류... 중국, AI로 감소하던 치킨소비량 증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치맥열풍이 이제는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의 닭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방송되고 있는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주인공 천송이 때문이다.


극 중 천송이는 치킨과 맥주, 일명 '치맥'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첫눈이 오거나 우울할 때면 치맥을 찾는다. 그런데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 드라마가 유명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확산되면서 중국 닭시장의 소비를 주도할 신호탄이 되고 있다.

AI로 인해 감소하던 치킨소비가 별그대 열풍과 함께 늘어나는 이 시기에 중화권 여배우 가오위안위안(고원원)과 판빙빙은 천송이 대사를 패러디해 "첫눈 오는 날에는 치킨에 맥주"라고 하면서 웨이보에 올리고, 메신저 '웨이신'에서도 이를 반영해 '치맥'을 입력하면 대화창에 눈이 내리는 등 치맥앞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는 광저우의 한 위성TV를 비롯한 각종 TV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으며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언론매체에서도 중국의 '치맥열풍'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계육협회는 최근 생겨난 치킨동아리(연세대학교 치킨동아리 피닉스)부터 많은 가수들이 치킨송(그룹 마블링-feat. 맹승지, 김상희와 그룹 장미여관 등)을 제작하는 등 대한민국 문화로 자리잡은 치킨 및 치맥문화가 AI도 극복해낸 '중국의 치맥열풍'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도 AI의 위기를 이겨내고 한국의 대표 문화로 닭고기가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치킨동아리와 그룹 마블링의 '렛츠꼬끼오-치킨송'의 뮤직비디오는 2월 23(일)에 촬영이 진행된다.

한국계육협회는 한류열풍으로서의 치맥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닭고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그대' 전지현, "치맥" 한마디에 中 닭시장 들쭉

[2014-02-17, 19:56:18] 문화포

최희수·633



▲ 전지현이 '별에서 온 그대'에서 치맥에 대해 언급한 장면 캡처 사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중국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에 나온 음식까지도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민넷(人民网), 동광넷(东方网)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별그대' 제10회에서 전지현이 김수현에게 "옛날이 오는 날에는 치맥(치킨과 맥주)이 별그대라고 말한 후, 현지에서 치맥 열풍이 불고 있다.

할리우(好莱坞)의 한 식당에서는 별편타인타이를 맞아 '치킨 맥주세트'를 일일 한정판으로 판매, 1원개가 넘는 세트를 판매했다.

상하이 코리안타운이 위치한 있는 홍완로(虹泉路)의 한 치킨집 주인은 '치킨에 맥주세트를 먹기 위해 주문 날래도 2~3시간 동안 줄서서 기다릴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닭 가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까이볼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춘절(春節,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공급량이 대폭 감소했는데 갑자기 주문량이 급증해 놀랐다'고 말했다.



1

1. 중국 광저우의 위성TV 뉴스에서 '별에서 온 그대' 인기로 힘입어 치맥열풍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웨이신'에서 '치맥'을 입력하면 눈 내리는 대화창이 열린다.
3. 중국의 포털사이트, 바이두(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개념)에 치맥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2



3

